

우리나라 3대 종교집단간 고정관념의 내용

홍 기 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이 될 고정관념의 내용들을 사회조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천안에 거주하는 일반인 289명과 대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3대 종교집단들인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게 하였다. 종교의 유무,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집단에 따라서 자기 종교집단, 또는 다른 종교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달랐고, 그 고정관념의 정도도 달랐다. 자기 집단에 대하여는 내집단이질성을 외집단에 대하여는 외집단동질성을 보였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종교일치성, 종교활동의 정도, 여러 종교의 교리의 독단성, 10년 후 각 종교집단의 교세에 대하여도 추정하게 하였다.

한덕웅(1994)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336개의 사회문제목록을 주고 선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환경공해, 정치적 부패, 교통문제, 교육문제, 범죄문제등 16가지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열거되었다. 사회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회문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민주화를 누릴때 부각된다(차재호, 1994). 즉, 시대에 따라서 그 순위는 변하기 마련이고, 어느 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분적인 해결이 되면, 다른 잠재되어 있던 사회문제들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전에는 사회문제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회문제의 전면

에 떠오를 수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질성회복,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간, 또는 노사간의 갈등 등은 앞에서 본 16가지의 중요한 사회문제에는 들어 있지 않았으나, 분명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집단간의 종파적 세력다툼(한덕웅의 연구에서는 336개의 사회문제들 중 236위에 있는)은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잠재적인 사회집단간 갈등의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종교집단간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종교집단

들 간의 고정관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신문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 다른 몇몇 나라의 종교간의 치열한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이 파괴된다는 소식을 들어왔다. 어느 종교나 사랑, 자비, 용서, 혹은 화해를 가르치면서 왜 서로 싸우고 파괴를 자행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며 종교간의 싸움은 종교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중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종교다원화 현상은 매우 심한 편이면서도 엄청난 파괴와 살육을 초래하는 갈등은 없다. 이러한 이유의 하나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종교들 중 어느 한 종교가 특정 지역이나, 어느 한 사회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어느 한 종교의 신도들의 수가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중 과반수를 점유하지도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화가 촉진되고 점차 자기 집단의 교리를 자유롭게 전파하고, 자기 집단의 이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조금씩 표면화 되고 있다. 우선, 외래 종교와 토착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즉, 단군성전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토착 종교집단인 단군교와 개신교 간의 대립이 있었다. 최근에는 연세대, 고려대에서 '천하대장군 목각시비' 문제가 발생하였다. 외래 종교들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개신교는 '민족 복음화'라는 표어를 내걸었고, 불교는 '전국민의 불자화 및 국토의 정토화'를 내걸어 서로 교세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 간의 교세 확장에 덧붙여, 같은 종교 안에서도 서로 종교적 교리를 달리하는 여러 교파들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 간의 끊임없는 異端시비와 CATV사업신청을 놓고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경쟁적인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잡음이 보도된 바 있고, 불교의 여러 종단들 간의 교리와 재산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의 그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있을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일 수 있는 여러 종교집단의 신도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우선 여러 종교집단들이 서로 다른 종교집단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이제까지 여러 종교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고정관념의 연구가 없어 여러 종교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의 내용을 알면, 각 종교집단들이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세울 수 있음은 물론, 여러 종교집단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다른 나라에서의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을 살펴 본 후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종교다원화현상을 살펴 보고, 사회조사를 통하여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외국에서의 종교집단 간의 갈등사례들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정보 25시, 1992).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종교적 갈등은 인도에서 있었던 힌두교도와 회교도간의 분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 곧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분쟁을 하였고, 인도내에서는 시크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중국에서도 신강 위그르 자치구는 이슬람교도들과 같은 수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한족, 카자흐, 타지크, 우즈베크, 키르키스족들 간의 종교분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티베트 지역에서 불교를 믿는 티베트인들과 중국정부간에 종교의 자유 및 독립을 놓고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필리핀에서는 민다나우섬과 술루열도를 거점으로 한 회교도들이 천주교가 지배적인 필리핀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잦은 무력충돌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종교분쟁은 가장 전형적이다.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양분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언하여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팔레스타인들은 가자, 요르단 서안지역 등으로 추방되었다. 최근 PLO와 요르단 등과 평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20여개의 종파가 난립하여 '종교백화점'이기도 한 레바논은 여러 종파들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분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교도가 기독교도보다 많아지면서 권력의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내전을 겪었다. 중동지역에서는 같은 이슬람교 안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도 있었다.

유럽지역에서의 종교분쟁의 역사는 더욱 길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개신교의 일파인 성공회와 북아일랜드의 천주교 간의 갈등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중해의 조그만 섬나라인 키프로스는 종교가 서로 다른 터키계 주민과 그리이스계 주민으로 구성되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의 터키와 그리이스 간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종교집단들 간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으며 이제까지는 오히려 여러 종교가 도입되고 발전하면서 서로 융화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다양화 되고 여러 사회집단들 간의 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집단들에 대한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다원화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삼국시대와 뒤이은 통일 신라,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이조시대에는 유교가 지배적인 종교집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여 어느 한 종교의 신도가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의 여러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어느 특정한 종교집단이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에

서도 기독교 또는 천주교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독특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갤럽연구소(198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49%가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인구들 중에서 불교도는 42.8%, 개신교도는 39.4%, 그리고 천주교도는 14.3%로 나왔다. 그리하여 신자의 수에 있어서 국민의 과반수를 점유하는 종교도 없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정한 종교가 지배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류성민, 1994).

여러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각기 성장 발전하게 된 데 대한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적 심성이 풍부하여, 어떤 종교든 쉽게 수용한다는 것이다(윤이흠, 1988).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심성이 샤머니즘(巫敎)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위에 불교와 유교가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여러 종교들이 도입되는 시기가 다르게 한국인의 심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어, 이러한 시차적인 이유로, 신념체계의 重層구조가 생겼다는 것이다(유동식, 1965). 어느 한 종교가 지배적이 되면,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지배적인 종교의 밑에 놓이게 되고, 지배적인 종교는 여타의 종교들을 배척하거나 독선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 안에 포용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공존이 가능했다고 설명한다(정진홍, 1990).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유교적이며, 인생관은 불교적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철학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이고, 운명관에 있어서는 무속적인 價値複合性을 보이는 것이다(윤이흠, 1988). 그리하여 세계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족적 단일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크게 상실되지 않은채 독특한 宗教多元化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서양의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종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적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1990)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자신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개신교의 경우 70.6%, 불교의 경우 41.6%, 그리고 천주교의 경우는 66.1%로 나왔고, 어머니와 자신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개신교의 경우 61.7%, 불교의 경우 36.5%, 그리고 천주교의 경우 60.7%로 나왔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신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51.3%로서 특히 불교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불일치된 종교의 비율은 60% 이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또 다른 연구에서 개신교도의 경우에도 평신도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52.8%,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0.7%로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종교와 더 일치됨을 보였다(현대사회연구소, 1982). 부부 간의 종교일치도 68.8%로서 1/3의 부부들은 서로 종교가 다르거나 어느 한 쪽만이 종교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 개신교인은 부부의 종교가 일치된 비율이 64.5%, 천주교인은 68.8%, 그리고 불교인은 79.4%로 나왔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한국에서의 종교다원화 현상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이 한번 이상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바꾼 개종의 경험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1%가 改宗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갤럽조사연구소, 1990). 이같은 상황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만큼 종교의 공존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종교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로 인하여 호오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개신교도의 경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나왔다(현대사회조사연구소, 1982). 천주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교인을 가장 호의적으로 보았고, 개신교도에 대하여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호의도를 보였다. 천주교도의 경우 불교도에 대한 호감이 더 간다고 하였다(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 1985).

우리나라의 종교다원화 현상은 가족들 간의 갈등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여러 지표를 들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러 종교집단은 상당히 큰 사회세력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등록된 교단의 수가 152개에 이르고, 5만여의 교당에 15만명 이상의 교직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특히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는 각기 고유의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으며, 각 종교와 관련된 정기 간행물도 163종에 이르고, 이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宗立學校와 각종 종립사회단체의 수도 상당하다.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의 종교인의 비율은 일반 국민들의 종교인의 비율보다 더 높다. 예로서, 국회의원 중에서 종교인은 전체 재적의원 296명 중에서 194명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종교인의 비율인 55%보다 더 높은 65%에 이른다(김영모, 1982). 이러한 수치들은 이미 여러 종교 집단들이 사회의 주도적 세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인 세력들이 이해가 달라질때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종교집단간의 고정관념이란 특정인이 어느 종교집단에 속하여 있다는 정보만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 생각들을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집단들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 대립과 투쟁 등의 행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기 전에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은 어떠한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의 3대 종교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정관념의 본질을 살펴보고 경험적 연구를 통한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의 내용을 볼 것이다.

고정관념의 본질 및 측정

固定觀念(stereotype)이란 말은 Walter Lippmann(1922)이 쓴 "Public Opinion"이란 책에 처음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이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단순

하게 보는 그림"이라고 고정관념을 정의하였다. 그의 생각은 Katz와 Braly(1933)에 의해서 처음으로 경험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들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인, 이탈리아인, 흑인, 영국인 등 인종집단을 제시하고 이들 인종집단의 전형적인 특성을 형용사 목록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유대인은 '약썩빠르다', '돈만 안다'라고 보았다. 또, 터어키인은 잔인하고, 배반을 잘하고, 관능적이고, 무식하고, 더러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프린스턴의 응답자들이 터어키인을 실제로 접촉한 사례가 없으면서도 그와같은 일관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집단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그 집단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이라고 볼 때 "전형적(typical)"이란 무슨 뜻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McCauley와 Stitt(1978)는 '독일인의 몇 %가 능률적인가', '독일인의 몇 %가 국수주의적인가'로 질문하여 독일인의 63.5%가 능률적이고, 독일인의 56.3%가 국수주의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또, '전 세계인 중 몇 %가 능률적인가', '전 세계인의 몇 %가 국수주의적인가'로 질문하여 전 세계인의 평균 49.8%가 능률적이고, 전 세계인의 평균 35.4%가 국수주의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같이 어떤 특성도 100%에 근접한 특성은 없었다. 따라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예외없이 모든 집단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50% 이상의 응답을 얻은 특성을 전형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인이 과학적인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찬택 비율은 50%이하였고, '독일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가'라는 데 대하여는 72.8%로 나왔는데, 50% 이상의 응답을 받은 특성을 그 민족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독일인에 대하여는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더 어울리게 된다. 그러나, 전 세계인의 과학적인 소질은 50%에 훨씬 못미치고, 전 세계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도는 82.2%였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은 그 집단

에게 귀속된 특성의 절대비율이 아닌 다른 나라, 또는 전 세계인의 평균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능률적이라는 특성에 대하여 독일인은 63.4%, 전 세계인은 49.8%이므로 이 둘의 상대적인 비($.634/.498=1.27$)가 1이 넘으면 "독일인은 능률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비율은 診斷率(diagnostic ratio)이 되며, 쾌락을 추구하는 정도에 있어서 독일인은 72.8%로서 50%가 훨씬 넘지만 전 세계인은 82.2%로서 그 진단율($.728/.828=.89$)이 1 이하이므로 비전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McCauley & Stitt, 197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졌을 특정한 한 특성의 비율을 묻기 보다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졌다고 보는 전형적인 특성들을 응답자들이 몇가지씩 열거하게 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여러 특성들의 누가비율이 50% 이내에 들어온 특성들을 고정관념적인 특성들로서 정의한다(예: 차재호, 1992). 그리고 특정한 인종집단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특성으로부터 차례로 열거하여 누가비율이 50%가 될 때까지 몇개의 특성들이 소요되는지로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합의정도, 또는 첨예도를 보일 수 있다. 즉, 특정한 인종집단을 기술하는데 누가비율 50%가 될때까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특성들만이 요구된다면 그 인종집단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발달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own, 1985).

그러나, 고정관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인종집단을 다룬 Katz와 Braly(1933)의 연구는 2차대전 이전에 수행된 것이고 Gilbert(1951)의 연구는 2차대전 직후에 수행된 연구로서 시간적 차이에 따른 고정관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951년의 연구에서는 독일인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거만하며, 매우 국수주의적이라는 특성들을 들었으나, 1933년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특성들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분쟁 전후의 인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개월의 간격을 두고 여덟 개 나라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를 보았는데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만이 극적으로 변화였고 나머지 7개국인에 대하여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국경분쟁이 있기 전에는 중국인을 예술적, 종교적, 근면한, 우호적, 그리고 진취적인 등으로 묘사하다가 분쟁 이후에는 공격적, 위협적, 기만적, 이기적, 그리고 호전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정관념은 특정한 사회집단에 따라서는 비교적 일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고정관념이 수정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차재호, 1992)에서도 조사시점에 따라서 여러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특히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호의도가 변화되었다. 즉,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생 집단에서는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선호는 더 떨어지는 반면에, 러시아인과 중국인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위에서 보아 오듯이 고정관념은 불합리한 면을 갖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종, 성, 지역, 그리고 연령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적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종교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 시점에서 그 변화의 추세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基底線(base line)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사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KAP(Knowledge, Attitude, & Practice) 중에서 주로 A에 초점을 두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표집의 규모보다는 엄격성을 강조하여 표집하였다(차재호 등, 1993). 즉,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 무선표집을 통한 대표적인 표본을 얻어 자료를 모았다. 이로써 정확한 수치를 얻어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에 대한 현재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을 시간을 두고 한 후속 연구들과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天安시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는 인구 20만의 대표적인 시로서 우리나라의 전체 종교집단의 분포를 잘 대표하리라고 기대하고 보았다. 천안시에 소속된 31개의 법정 洞 중에서 문화동, 청수동, 그리고 다가동의 3개 동을 무선적으로 표집하였다. 이들 3개 동에서 다시 각각 2개 統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동은 6개 통이, 청수동에는 7개 통이, 그리고 다가동은 15개 통이 있었는데 이들 3개 동에서 각기 3개 통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문화동에서는 2통과 6통을, 청수동에서는 5통과 7통을, 그리고 다가동에서는 10통과 13통을 선정하였다. 각 통에서 다시 2개 班씩을 무선 선정하여 이들 두개 반을 표집틀(Bailey, 1982)로 삼았다. 이 표집틀(sampling frame)은 실제 표집되어지는 표집단위들의 목록이었다. 다음에는 각 표집틀 안에서 각 반별로 20내지 25명씩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모두 289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5개 단과 대학에서 각각 2개 학과를 무선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과의 총원명부를 놓고 무선적으로 30명씩 선정하여, 모두 27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이 연구에서는 3면(가로 19.5cm x 세로 26cm)으로 된 “종교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조사”를 사용하였다. 5월 9일부터 10일 양일 간 산업심리학과 학생 50명에게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해 질문지를 수정 보완 하였다. 이 설문지에는 모두 14개 문항이 들어 있었는데, 조사의 초점은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적 특성들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여러 종교집단들의 10년 후의 교세 전망, 가족들과 종교의 일치여부, 교리의 포용성, 그리고 종교활동의 빈도 등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시기와 절차

설문지 조사는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와

재학생 121명이 하였다. 조사원들은 조사목적과 유의점을 사전에 교육받고 남녀 2명이 1조를 이루어 표집된 조사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조사하였다. 한 가구 당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결 과

응답자들의 배경

대학생들은 천안지역 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대표하여 고정관념의 내용을 제외한 다른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일반인 289명 중 남자는 100명(34.6%), 여자는 189명(65.4%)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19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86명(29.8%), 40대가 47명(16.3%), 그리고 50대 이상이 37명(12.8%)이었다. 응답자들 중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의 3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164명(56.7%)이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125명(43.3%)이었다. 3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가 76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가 39명(25.8%), 그리고 불교가 36명(23.8%)의 순으로 나왔다.

각 종교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

개신교인의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 : 개신교인들이 본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분석한 것이 표 1에 나와 있다. 표 1에는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의 3대 종교집단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고정관념적인 특성들을 가장 높은 빈도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누가비율이 50%에 달할 때까지 제시하였다. 개신교인들은 자기 종교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 중 장점은 ‘단결력이 강하다’(13.4%), ‘헌신적이다’(10.5%), ‘적극적이다’(10.5%), ‘사교적이다’(9.2%), 그리고 ‘성실하다’(8.6%)를 들었다. 한편 개신교인들의 단점이라고 본 특성들은 ‘강요적이다’(19.7%), ‘시끄럽다’(14.5%), ‘배타적이다’(12.5%), 그리고 ‘전통의식이 약하다’(9.2%)가 나왔다. 개신교인들이 열거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의 누가비율은 고정관념의 첨예도를 반영할 수 있다. 즉, 개신교인들의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특성의 수는 장점의 경우는 5개로 동일하나, 단점의 경우는 4개로 나와 장점보다는 단점을 지각하는데는 더 발달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표 1. 개신교인들의 각 종교별 고정관념

	개 신 교		불 교		천 주 교	
	특성	비율(누가)	특성	비율(누가)	특성	비율(누가)
장 점	단결력이 강	13.4(13.4)	조용하다	14.5(14.5)	조용하다	16.4(16.4)
	헌신적	10.5(23.9)	관대하다	13.8(28.3)	경건하다	15.1(31.5)
	적극적	10.5(34.4)	경건하다	10.5(38.8)	평화적	9.9(41.4)
	사교적	9.2(43.6)	전통의식 강	9.2(48.0)	헌신적	7.2(48.6)
	성실하다	8.6(52.2)	검소하다	7.9(57.9)	검소하다	5.9(54.5)
단 점	강요적	19.7(19.7)	보수적	18.4(18.4)	보수적	21.1(21.1)
	시끄럽다	14.5(34.2)	단결력이 약	13.8(32.2)	권위주의적	11.2(32.3)
	배타적	12.5(46.7)	수동적	10.5(42.7)	수동적	7.9(40.2)
	전통의식이 약	9.2(55.9)	우상숭배적	9.9(52.6)	정치적	6.6(46.8)
					금욕적	5.9(52.7)

개신교인들의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14.5%), ‘관대하다’(13.8%), ‘경건하다’(10.5%), ‘전통의식이 강하다’(9.2%), 그리고 ‘검소하다’(7.9%)가 나왔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18.4%), ‘단결력이 없다’(13.8%), ‘수동적이다’(10.5%), 그리고 ‘우상숭배적이다’(9.9%)가 나왔다.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장단점과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 간에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개신교인의 장점으로 지적된 ‘단결력이 강하다’와 ‘적극적이다’는 특성이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특성이 부족하여 단점으로 지적되는 흥미있는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신교인의 단점이라고 본 ‘배타적이다’, ‘시끄럽다’는 특성은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가졌기에 장점으로 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개신교인들의 천주교인에 대한 고정관념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16.4%), ‘경건하다’(15.1%), ‘평화적이다’(9.9%), ‘헌신적이다’(7.2%), 그리고 ‘검소하다’(5.9%) 등이었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21.1%), ‘권위주의적이다’(11.2%), ‘수동적이다’(7.9%), ‘정치적이다’(6.6%), 그리고 ‘금욕적이다’(5.9%) 등이었다.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의 장점으로 본 특성들 중 ‘조용하다’, ‘경건하다’, 그리고 ‘검소하다’는 특성들은 불교인의 장점으로도 보았다. 이들 특성들은 개신교의 장점에서는 열거되지 않던 특성들인 점에서 대비가 된다. 천주교인의 단점으로 열거된 특성들 중 ‘보수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특성은 역시 불교인의 단점들로서도 지적되었다.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단점들 중에서 다른 점은 불교인은 ‘우상숭배적’이고, 천주교인은 ‘정치적’인 것이 단점으로서 지적되었다. 또한 개신교들은 불교인과 천주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소요되는 특성의 수에 있어서 천주교보다는 불교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의 수를 적게 보아 천주교인보다 불교인에 대하여 보다 발달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인의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 : 불교인들이 본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분석한 것이 표 2에 나와 있다. 불교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 중 장점으로 ‘사교적이다’(18.1%), ‘단결력이 강하다’(16.7%), ‘적극적이다’(9.7%), 그리고 ‘헌신적이다’(8.3%)를 들었다. 한편 개신교인들의 단점이라고 본 특성들은 ‘시끄럽다’(22.2%), ‘강요적이다’(20.8%), 그리고 ‘배타적이다’(6.9%)가 나왔다. 이들 고정관념적 특성들의 내용은 개신교인들이 자기 집단을 바라보는 반응과 비슷한 것들이지만 개신교들이 개신교들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열거하여 누가비율이 50%에 이르기까지 장점은 5개, 단점은 4개가 소요되었으나, 불교인들이 본 개신교인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이 50%에 이르는 데는 장점이 4개, 단점이 3개로 나와 불교인은 개신교인에 대하여 비교적 발달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불교인들이 본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13.9%), ‘경건하다’(11.1%), ‘검소하다’(11.1%), ‘전통의식이 강하다’(9.7%), 그리고 ‘선량하다’(9.7%)가 나왔고, 단점으로는 ‘단결력이 없다’(19.4%), ‘보수적이다’(11.1%), ‘우상숭배적이다’(9.7%), 그리고 ‘전통의식이 강하다’(9.7%)가 나왔다. 고정관념의 내용을 보면, 불교인들도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장단점과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 간에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개신교인의 장점으로 지적된 ‘단결력이 강하다’와 ‘적극적이다’는 특성이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특성이 부족하여 단점으로 지적되는 흥미있는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신교인의 단점이라고 본 ‘배타적이다’, ‘시끄럽다’는 특성은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가졌기에 장점으로 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불교인들의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특성의 수를 불교인의 결과와 비교하면, 장단점의 경우 모두 더 많은

표 2. 불교인들의 종교집단별 고정관념

	개신교		불교		천주교	
	특성	비율(누가)	특성	비율(누가)	특성	비율(누가)
장점	사교적	18.1(18.1)	조용하다	13.9(13.9)	조용하다	13.9(13.9)
	단결력이 강	16.7(34.8)	경건하다	11.1(25.0)	평화적	12.5(26.4)
	적극적	9.7(44.5)	검소하다	11.1(36.1)	경건하다	11.1(37.5)
	헌신적	8.3(52.8)	전통의식 강	9.7(45.8)	검소하다	9.7(47.2)
단점			선량하다	9.7(55.5)	헌신적	8.3(55.5)
	시끄럽다	22.2(22.2)	단결력이 약	19.4(19.4)	권위주의적	20.8(20.8)
	강요적	20.8(43.0)	보수적	11.1(30.5)	수동적	6.9(27.7)
	배타적	6.9(49.9)	우상숭배적	9.7(40.2)	전통의식 약	6.9(34.6)
			전통의식 약	9.7(49.9)	단결력이 약	5.6(40.2)
					금욕적	5.6(45.8)
					정치적	5.6(51.4)

특성의 수가 소요되었다. 이는 자기 집단원들중에는 여러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내집단이 질성(ingroup heterogeneity)과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유사한 나머지 적은 수의 특성들로 성격지워버리는 外集團同一視(outgroup homogeneity)를 반영하는 것이다(Linville, 1982). 불교인들의 천주교인에 대한 고정관념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13.9%), '평화적이다'(12.5%), '경건하다'(11.1%), '검소하다'(9.7%), 그리고 '헌신적이다'(8.3%) 등이었고, 단점으로는 '권위주의적이다'(20.8%), '수동적이다'(6.9%), '전통의식이 약하다'(6.9%), '단결력이 없다'(5.6%), '금욕적이다'(5.6%), 그리고 '정치적이다'(5.6%) 등이었다.

불교인들이 본 천주교인의 장점으로 본 특성들 중 '조용하다', '경건하다', 그리고 '검소하다'는 특성들은 불교인의 장점으로도 지적하였다. 이들 특성들은 개신교의 장점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특성들인 점에서 대비가 된다. 천주교인의 단점으로 열거된 특성들 중 '단결력이 약하다'는 특성은 역시 불교인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단점으로서 지적되었다.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단점들중에서 다른

점은 불교인은 전통의식이 강한 반면에 천주교인은 전통의식이 약하고, 권위주의적인 것이 단점으로서 지적되었다. 불교인들은 자기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전통의식이 강하다'는 특성을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으로 보았는데(단점보다는 장점이라고 본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음), 이는 전통의식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된 때문인 듯하다. 불교인들은 불교인과 천주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소요되는 특성의 수로 비교해볼때 천주교보다는 불교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덜 발달됨을 보였다.

천주교인의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

천주교인들의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분석한 것이 표 3에 나와 있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 중 장점으로 '사교적이다'(16.7%), '단결력이 강하다'(12.8%), '헌신적이다'(11.5%), 그리고 '적극적이다'(9.0%)를 들었다. 한편 천주교인들이 보는 개신교인들의 단점이라고 본 특성들은 '강요적이다'(21.8%), '배타적이다'(15.4%), 그리고 '열광적이다'

(12.8%)가 나왔다. 이들 고정관념적 특성들의 내용은 개신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보인 반응과 비슷한 것들이지만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첨예도는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고정관념의 정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개신교들이 개신교들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열거하여 누가비율이 50%에 이르기까지 장점은 5개, 단점은 4개가 소요되었으나, 천주교인들에서는 50%에 이르는 데는 장점이 4개, 단점이 3개로 나와 천주교인들은 불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신교인에 대하여 비교적 발달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천주교인들이 본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23.1%), '경건하다'(10.3%), '관대하다'(9.0%), 그리고 '평화적이다'(7.7%)가 나왔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16.7%), '우상숭배적이다'(9.7%), '수동적이다'(9.0%), '전통의식이 강하다'(7.7%), 그리고 '금욕적이다'(7.7%)가 나왔다. 고정관념의 내용을 보면, 천주교인들도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장단점과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 간에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개신교인의 장점으로 지적된 '단결력이 강하다'와 '적극적이다'는 특성이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특성이 부족하여 단점으로 지적되는 흥미있는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신교인의 단점이라고 본 '배타적이다', '열광적이다'라는 특성은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가졌기에 장점으로 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특성의 수를 불교인의 결과와 비교하면, 장단점의 경우 모두 불교인에 대하여서 더 많은 특성의 수가 소요되었다. 이는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보다도 불교인들에 대하여 고정관념이 덜 발달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천주교인들의 천주교인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들 중 장점으로서는 '경건하다' (16.7%), '평화적이다'(15.4%), '선량하다'(10.3%), 그리고 '검소하다'(9.7%) 등

이었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11.5%), '수동적이다'(9.0%), '권위주의적이다'(9.0%), '정치적이다'(7.7%), '시끄럽다'(6.4%), '우상숭배적이다'(5.1%), 그리고 '배타적이다'(5.1%) 등이었다. 천주교인들이 본 천주교인의 장점으로 본 특성들 중 '경건하다', 그리고 '평화적이다'는 특성들은 불교인의 장점으로도 지적하여 두 종교집단들 간의 유사성을 지각하고 있었다. 이들 특성들은 개신교의 장점에서는 열거되지 않던 특성들인 점에서 대비가 된다. 천주교인의 단점으로 열거된 특성들 중 '보수적이다', '우상숭배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특성은 역시 불교인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단점으로서 지적되었다.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단점들 중에서 다른 점은 불교인은 전통의식이 강하고, 금욕적인 반면에 천주교인은 정치적이고, 시끄러우며, 권위주의적, 그리고 배타적인 것이 단점으로서 지적되었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 또는 불교인과 천주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소요되는 특성의 수에 있어서 천주교(7개)보다는 개신교(3개)와 불교(5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의 수를 더 많게 요구하여 천주교인들은 자기 집단원들 중에는 여러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내집단이질성(ingroup heterogeneity)을 보였다(Linville, 1982).

비종교인들의 각 종교집단별 고정관념 : 비종교인들이 본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 중 장점은 '사교적이다'(12.4%), '헌신적이다'(12.4%), '단결력이 강하다'(11.2%), '평화적이다'(8.4%), 그리고 '친절하다'(8.0%)를 들었다. 한편 비종교인들이 보는 개신교인들의 단점이라고 본 특성들은 '강요적이다'(20.0%), '시끄럽다'(12.8%), '배타적이다'(12.0%), 그리고 '열광적이다'(12.8%)가 나왔다. 이들 고정관념적 특성들의 내용들 중 '사교적이다', '헌신적이다', 그리고 '단결력이 강하다'는 개신교인, 불교인, 그리고 천주교인 등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신교인들에 대한 반응과 비슷한 것들이지만 '평화적이다', '친절하다'는 비종교인들에게서만 보이는 고정관념적인 장점들

이었다.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들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열거하여 누가비율이 50%에 이르기까지 장점은 5개, 단점은 4개가 소요되었으나, 불교와 천주교인들이 본 개신교인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이르는 데는 장점이 4개, 단점이 3개로 나와 불교인들과 천주교인들보다 비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비교적 약한 고정관념을 보였다. 비종교인들은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 중 장점으로 '조용하다' (15.6%), '경건하다' (12.8%), '검소하다' (10.4%), '전통의식이 강하다' (7.6%), 그리고 '평화적이다' (6.0%)가 나왔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 (19.6%), '우상숭배적이다' (19.2%), '단결력이 없다' (9.2%), 그리고 '권위주의적이다' (7.2%)가 나왔다.

고정관념의 내용을 보면, 비종교인들도 종교인들과 대체로 유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비종교인들은 불교인의 단점으로서 권위주의적이라는 특성을 지적한 것이 특이하다. 비종교인들의 천주교인에 대한 고정관념들 중 장점으로는 '경건하다' (15.6%), '평화적이다' (12.8%), '조용하다' (10.8%), '헌신적이다' (8.8%), '단결력이 강하다' (7.6%) 등이었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 (16.0%), '권위주의적이다' (7.6%), '우상숭배적이다' (6.8%), '정치적이다' (6.4%), '수동적이다' (6.4%), 그리고 '배타적이다' (6.4%) 등이었다. 비종교인들이 본 천주교인의 장점으로 본 특성들은 종교인들이 본 특성들과 유사하였고, 특히 비종교인들은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 모두가 '평화적이다'라고 보아 비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지각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 비종교인들은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공통적인 단점으로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우상숭배적이다'를 들었고,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공통적인 단점으로 '배타적이다'를 들었는데 이는 비종교인들이 3대종교인들 모두가 유사한 장단점을 지닌 것으로 지각함을 보인 것이다. 비종교인들은 천주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보다 개신교인 또는 불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소요되는 특성의 수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수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비종교인들이 3대종교인들 모두가 유사한 장단점을 지닌 것으로 지각함을 보인 것이다. 비종교인들은 천주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보다 개신교인 또는 불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 누가비율 50%에 소요되는 특성의 수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수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비종교인들은 개신교나 불교인보다는 천주교인에 대하여 비교적 약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기타 종교인의 각 종교별 고정관념 : 유교, 천도교, 회교, 단군교 등과 기타 자생종교를 믿는 기타 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고정관념적인 특성 중 장점으로 '단결력이 강하다' (19.2%), '친절하다' (15.4%), '평화적이다' (11.5%), 그리고 '사교적이다' (7.7%)를 들었다. 한편 개신교인들의 단점이라고 본 특성들은 '시끄럽다' (15.4%), '열광적이다' (11.5%), '강요적이다' (11.5%), '이기적이다' (7.7%), 그리고 '배타적이다' (7.7%)가 나왔다. 기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 개신교인의 장점으로 '단결력이 강하다'를 가장 많이 든 것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 사교적이다를 가장 먼저 든 것과 대비된다.

기타 종교인들이 본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 중 장점으로는 '조용하다' (19.2%), '경건하다' (15.4%), '검소하다' (11.5%), 그리고 '금욕적이다' (11.5%)가 나왔고, 단점으로는 '우상숭배적이다' (23.1%), '보수적이다' (23.1%), 그리고 '단결력이 없다' (15.4%)가 나왔다. 고정관념의 내용을 보면, 비종교인들도 종교인들과 대체로 유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비종교인들은 누가비율 50%에 이르는 데 3개의 특성만 소요되어 기타 종교인들이 불교인에 대하여는 비교적 발달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기타 종교인들의 천주교인에 대한 고정관념들 중 장점으로는 '조용하다' (15.4%), '헌신적이다' (15.4%), '평화적이다' (11.5%), 그리고 '검소하다'

'(11.5%) 등이었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26.9%), '우상숭배적이다'(11.5%), '정치적이다'(7.7%), 그리고 '권위주의적이다'(3.8%)등을 들었다. 비종교인들이 본 천주교인의 장점으로 본 특성들은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 본 특성과 유사하였고, 특히 불교인의 장점과 천주교인의 장점은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었다. 기타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 또는 비종교인들보다 천주교인의 단점을 열거할 때보다 누가비율 50%에 소요되는 특성의 수에 있어서 더 적은 수를 필요로 하여 비교적 더 강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보였다.

부모 또는 가족과의 종교일치 정도 :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는 가족 내 부부, 부모-자식 간의 종교가 동일한 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종교집단들이 세대가 이어져 오며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를 밝혀 주게 되며, 종교가 가족내 갈등의 한 원천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부모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지와 응답자들의 자녀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지를 따로 질문하였다.

부모와 종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치된다고 한 반응의 비율은 불교인(77.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개신교인(61.8%), 천주교인(59.0%), 비종교인(34.4%), 그리고 기타 종교인(16.7%)의 순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천주교인(33.3%)과 개신교인(28.9%)의 불일치율이 아주 높고, 불교인(8.3%)의 경우는 아주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불교인의 경우 부모의 종교가 다음대로 많이 전이됨을 보이나,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은 부모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들의 종교와 그들의 자녀들 간의 종교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일치한다고 한 비율은 개신교인(91.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천주교인(81.8%), 불교인(78.7%)의 순으로 나왔다. 이는 불교인, 천주교인, 그리고 개신교인의 순으로 가족내에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대로 대를 이어 같은 종교를 갖는 경향성은 개신교인에서 가장 높았고, 불교인에서는 가장 낮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의 부모와 종교일치 비율은 응답자들의 자녀와 종교일치의 비율보다 낮음을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가 일치된 종교를 가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0년후 교세에 대한 전망 : 응답자들에게 "10년 후에 여러 종교집단의 교세가 어떻게 증감 될 것인지"에 응답하게 한 결과 대체로 자기 종교집단의 교세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다른 종교집단의 교세는 각 종교집단별로 약간씩 달랐다. 먼저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의 교세가 증가한다고 본 사람들(80.3%)이 가장 많았고, 현재의 교세보다 감소(9.2%), 또는 현재의 교세와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불변(9.2%)의 순으로 나왔다. 개신교인들은 불교의 교세에 대하여는 감소(47.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변(30.3%), 증가(1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천주교에 대하여는 불변(40.8%)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감소(26.7%), 증가(23.7%)의 순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개신교인들은 10년후의 각 종교집단의 교세가 개신교는 증가, 불교는 감소, 그리고 천주교는 불변일 것으로 내다 보았다.

불교인들은 불교의 교세가 증가한다고 본 사람들(69.4%)이 가장 많았고, 현재의 교세와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불변(25.0%), 현재의 교세보다 감소(5.6%)의 순으로 보았다. 불교인들은 개신교의 교세에 대하여는 증가(41.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감소(27.8%), 불변(25.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천주교에 대하여는 불변(41.7%)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가(30.6%), 감소(16.7%)의 순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불교인들은 10년후의 각 종교집단의 교세가 대체로 불교와 개신교는 증가, 천주교는 불변일 것으로 내다 보았다.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교세가 증가한다고 본 사람들(71.8%)이 가장 많았고, 현재의 교세와 달

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불변(20.5%), 그리고 현재의 교세보다 감소(5.1%)의 순으로 보았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의 교세에 대하여는 증가(43.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감소(25.6%), 불변(1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불교에 대하여는 감소(48.7%)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가(17.9%)와 불변(17.9%)이 같은 순위로 나왔다. 그리하여 천주교인들은 10년 후의 각 종교집단의 교세가 대체로 천주교와 개신교는 증가, 불교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포용성: “여러 종교 집단들에서 내세우고 있는 敎理들이 있는데, 이들 교리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한 비율은 천주교인(84.6%)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불교인(69.4%), 개신교인(59.2%)의 순으로 낮은 포용성을 보였다. 이는 3대 종교집단들 중에서 천주교가 가장 포용적인데 비하여 개신교는 가장 낮은 포용성을 보여 가장 교조적(dogmatic)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종교집단들의 종교활동 정도: 여러 종교집단들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개신교인은 주 1회, 불교인은 년 2-4회, 그리고 천주교인은 주 1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년 2-4회 하는 소극적인 종교활동을 1점으로 하고 주 3회 하는 종교활동은 5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하면, 개신교인은 5점 척도상 2.95점, 불교인은 2.10점, 그리고 천주교인은 2.55점으로 나타나, 개신교인의 종교활동이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은 천주교, 그리고 불교인의 순으로 활동함을 보였다.

논 의

이 논문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종교집단들 간

의 갈등이 다른 나라의 그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있을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일 수 있는 여러 종교집단의 신도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족적 단일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크게 상실되지 않은채 독특한 宗教多元化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교집단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종교일치를 볼 수 없고, 부모 또는 자녀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의 특이한 종교다원화 현상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이 한번 이상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바꾼 개종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종교집단들 간의 이해가 달라질때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러 종교집단들 간에 실제보다 훨씬 더 이해 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것처럼 단순하게 보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도 종교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 시점에서 그 변화의 추세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저선을 마련하여, 종교집단들 간의 고정관념에 대한 현재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같은 지역을 시간을 두고 한 후속 연구들과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각 종교집단별로 자기집단 또는 다른 종교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 중 장점은 ‘단결력이 강하다’, ‘헌신적이다’, ‘적극적이다’, ‘사교적이다’, 그리고 ‘성실하다’를 들었다. 한편 개신교인들의 단점이라고 본 특성들은 ‘강요적이다’, ‘시끄럽다’,

‘배타적이다’, 그리고 ‘전통의식이 약하다’가 나왔다.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특성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 ‘관대하다’, ‘경건하다’, ‘전통의식이 강하다’, ‘평화적이다’, 그리고 ‘검소하다’가 나왔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 ‘단결력이 없다’, ‘수동적이다’, 그리고 ‘우상숭배적이다’가 나왔다. 천주교인에 대한 고정관념들 중 장점으로서는 ‘조용하다’, ‘경건하다’, ‘평화적이다’, ‘헌신적이다’, 그리고 ‘검소하다’ 등이었고, 단점으로는 ‘보수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수동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리고 ‘금욕적이다’ 등이었다. 천주교인의 장점으로 본 특성들 중 ‘조용하다’, ‘경건하다’, 그리고 ‘검소하다’는 특성들은 불교인의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장단점과 불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장단점 간에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개신교인의 장점으로 지적된 ‘단결력이 강하다’와 ‘적극적이다’는 특성이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특성이 부족하여 단점으로 지적되는 흥미있는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신교인의 단점이라고 본 ‘배타적이다’, ‘시끄럽다’는 특성은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가졌기에 장점으로 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들 특성들은 개신교의 장점에서는 열거되지 않던 특성들인 점에서 대비가 된다. 천주교인의 단점으로 열거된 특성들 중 ‘보수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특성은 역시 불교인의 단점들로서도 지적되었다.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단점들 중에서 다른 점은 불교인은 우상숭배적이고, 천주교인은 정치적인 것이 단점으로서 지적되었다.

각 종교집단들 마다 자기집단과 다른 집단의 고정관념적인 특성들의 누가비율이 50%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특성의 수로 고정관념의 침예도를 볼 수 있다. 자기집단의 고정관념적인 장점이 단점의 특성을 열거하여 그 특성들의 누가비율이 50%에 이르는 데는 다른 집단의 장단점을 들어 그 누가비율이 50%가 될 때까지의 수보다 더 많았다. 이는 자기 집단원들 중에는 여러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내집단이질성(ingroup het-

erogeneity)과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유사한 나머지 적은 수의 특성들로 규정지워버리는 외집단동일시(outgroup homogeneity)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50%에 소요되는 특성들의 수를 비교하면, 개신교(7.7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불교(9.0개), 그리고 천주교(10.3개)의 순이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천주교(11개)에 대하여 가장 낮은 고정관념적 침예도를 보였고, 개신교와 불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도(9개)의 고정관념적 침예도를 보였다. 기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인(7개)들에 대하여 가장 침예한 고정관념을 보였고, 그 다음은 천주교(8개), 그리고 개신교(9개)의 순으로 고정관념적인 침예도를 보였다.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인 가족내 부모-자식 간의 종교가 동일한 지에 있어서 여러 종교집단별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종교와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불교인이었고, 그 다음은 개신교인, 천주교인, 비종교인, 그리고 기타 종교인의 순으로 나왔다. 응답자들의 종교와 그들의 자녀들 간의 종교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개신교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천주교인, 불교인, 기타 종교인, 그리고 비종교인의 순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부모의 종교를 질문하되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를 구분하지 않았고, 응답자의 부부 간에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갈등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은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10년 후에 여러 종교집단의 교세가 어떻게 증감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기 종교집단의 교세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다른 종교집단의 교세는 각 종교집단별로 약간씩 달랐다. 대체로 개신교는 교세가 증가, 불교와 천주교는 불변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여러 종교 집단들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리들이 있는데, 이들 교리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천주교인

에서 가장 높아 포용성이 높고, 그 다음은 불교였으며, 개신교는 가장 낮은 포용성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 종교집단들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개신교인의 종교활동이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은 천주교, 그리고 불교인의 순으로 활동함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종교집단들 간에 호오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교세에 대한 추정, 교리의 포용성 정도, 그리고 종교활동의 정도와 함께 여러 종교집단들에 대한 호오도에 대한 연구도 후속 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엄격한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한 나머지 적은 수의 사례만을 분석하였고, 조사대상도 한 지역에만 국한시켰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하여 본 조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모(1982). 한국지배층연구. 서울 : 일조각.
- 노봉린(1988). 한국의 종교다원주의 현황. 목회와 신학. 서울 : 두란노서원.
- 류성민(1994).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편.
- 류성민(1989). 종교인들의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편, 세대간 정치사회적의식 비교연구. 경기성남 : 현대사회연구소.
- 유동식(1965).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윤이흠(1988). 한국종교연구, 2, 서울 : 집문당.
- 정보 25시(1992). 데이터 리서치. 한국조사기자회 편. 서울 : 한국교육문화원.
- 정진홍(1990). 종교와 윤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편. 서울 : 법문사.
- 차재호 · 고재홍 · 홍기원 · 구정숙 · 안미영(1993). 지방과 도시인의 교통수단이용실태 및 태도 비교연구. 심리과학, 2, 19-49.
- 차재호(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교육부 학술진흥연구조성비 지원 자유응모과제연구보고서.
- 차재호(1994).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한국심리학회 94춘계심포지움논문집, 1-24.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편(1990).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편(1985). 사회조사보고서. 서울 :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 한국종교사회문제소 편(1993). 한국종교연감. 서울 : 한림원.
- 한덕웅(1994).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 한국심리학회 94춘계심포지움논문집, 27-68.
- 현대사회연구소 편(1982). 한국교회성장과 신앙양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 성남 : 현대사회연구소.
- Brown, R.(1986). *Social Psychology*. Glencoe, III. : Free Press.
- Gilbert, G. M.(1951). Stereotype persistence and chang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6, 245-254.
- Katz, D., & Braly, K. W.(1933). Racial stereotypes of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Linville, P. W.(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Lippman, W.(1992). *Public opinion*. New York : Harcourt Brace Javonovich.
- McCauley, C., & Stitt, C. L.(1978). An individual and quantitative measure of stereotype. *Journal of Personality*, 36, 929-940.

A Survey on the Stereotypes of Three Religious Groups in Korea

Ki-Won Hong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Conflicts among religious groups are a potential source of social issue, since religious plurality is prevalent in Korea. Identifying the stereotypes among the three largest religious groups would be helpful to improve religious harmony in Korea. Five hundred and sixty five respondents were sampled and asked to choose stereotypic merits and demerits of Protestants, Buddhists, and Catholics from given 32 religious relevant traits. Protestants' merits were chosen as solidarity, devoted, active, sociable, and sincere and their demerits were chosen as demanding, clamorous, exclusive, and weak traditional. Buddhist's merits were chosen as quite, generous, pious, and traditional and their demerits were chosen as conservative, weak solidarity, passive, idolatrous. Catholics' merits were chosen as quite, pious, peaceful, devoted, and frugal and their demerits were chosen as conservative, passive, political, and obstinate. Other related questions such as religious consistency between family, forecasting of three religious power in 10 years, and religious activity were also discussed.